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첫 삽'

중소기업 입주 애로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착공식 가져 혁신성장플랫폼 · 창업생태계 활성화 위한 거점 역할 수행 기대

전주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8일 시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전주시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 자리에선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중기부 관계자,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경제산업에 대한 발전과 방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28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998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전기실, 기계실 등이 들어서는 지상 1층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입주 시설과 제조창업 구축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전주시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중기부 관계자,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또 건물 2층~4층에는 기업입주시설과 교육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 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연계해 기술제조창업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주기술창업혁신지원센터가 가동되면 기술창업기업과 성장

꿈꾸는 40여 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꿈을 키울 수 있어 시민 위한 500여 개 규모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창업초기단계 이후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한 재직자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전북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플랫폼이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첨단벤처단지 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조성지 맞은편에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터전인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요람이 될 지하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산업 거점 공간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새로운 산업 동력을 키우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성장도 뒷받침해 글로벌 강소기업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또래와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

전주시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모집

스스로 계획해 경험하고 주관을 살린 창의력을 키워 친구들과의 면밀한 관계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주시가 나섰다.

전주시 청소년들의 야심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주시는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를 계획해 운영하고 있다.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구성해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목적이 야호학교 핵심 사업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야호학교 2023년 1기 로컬프로젝트'에 참여할(만11세~18세) 청소년 100명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야호학교 2023년 1기 로컬프로젝트부터는 예년과 다르게 기존 만 13세~18세 청소년에서 만11세~18세 청소년으로 모집연령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는 '문화, 예술, 창작, 과학탐구, 음악, 요리, 봉사, 탐험' 등 활동 분야를 확대해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로컬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기주도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야호학교의 자치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야호학교만의 특색있는 청소년 자치프로젝트인 로컬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 청소년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5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 위한 교육

전주시, 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관리 · 기능보강 사업 내용 진행

체계적인 전주시 경로당 운영을 만들기 위해 35개 동과 완산·덕진구청 경로당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내용은 '2023년 경로당 보조금 종류와 금액, 집행 및 정산 유의 사항, 경로당 유지보수(기능보강) 사업의 바뀐 내용' 등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들로 지난 7일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주시역 6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 예산 22억 9600만 원으로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국도비 보조 예산 14억7700만원으로

특별병난방비(동절기난방비, 하절기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억 6500만원의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경로당의 시설보수와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 신규사업으로 159개 경로당에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각 동에서 설치 희망 경로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교육을 통해 경로당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및 원활한 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주시 경로당 운영을 만들기 위해 35개 동과 완산·덕진구청 경로당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즐겁게 여가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공한지 무료주차장 환경정비

완산구는 주택가 인근에 조성된 공한지 무료주차장 일제정비를 오는 13일부터 6주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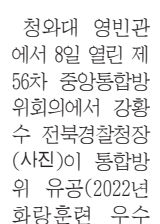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실태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나감으로써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현재 완산구 내에 570여 개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한지 주차장 31개소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완산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첨와대 영민관에서 8일 열린 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사진)이 통합방위 유공(2022년 화랑훈련 우수 등)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통합방위태세 추진 방향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통합방위본부의 발표 및 각종 테러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 토의가 진행됐다.

통합방위 유공 표창은 매년 정부기관, 경찰, 군부대, 자치단체, 국가중요

시설 등에 대하여 통합방위 계획 및 시행, 활동 등을 분야별로 평가해 연 1회 수여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전북경찰청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찰 작전부대 개편 및 대간첩·대테러 합동훈련 정례화, 관찰도서 등 취약지 수색작전, 대테러 장비개발 등 도·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 노력한 결과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수상은 관계 기관과 도민이 함께 전북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이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 마전파크골프장 방문 소통행정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삼천동 마전교 소재(대한방직 옆 하천)한 마전파크골프장을 8일 방문해 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민원현장 중심 소통행정 일환으로 마련했다.

엄 완산구청장은 방문을 통해 골프

장 이용객 어르신들의 동절기 건강을 살피며 시설 안전과 골프장 운영에 대한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시민들은 하천 주차장 관련해 이용불편을 건의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관리에서 의견을 내었다.

이에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의견을 토대로 시민 건강증진 위해 관련 부서와 검토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